

환경윤리교육의 체용론(體用論)적 접근 방안

- <자연-경제-환경>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

김태경

(경인여자대학)

An Alternative Approach to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CHAE(體)-YONG(用)-SANG(相) Theory

Kim, Tae - Kyung

KyungIn Women's College

ABSTRACT

There are some considerations that must take into account in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aspect of the difference of value clarification between ecological and economic viewpoint on environment. Although we have a tendency to think that the differences are unavoidable because we are on the economy-oriented life, we should realize that such emphasis to economics comes from the differences between ecological and economic view point on environment.

We have lived and thought on the basis of Economic view point, especially, environmental policies a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economic efficiency. But this tendency has become great obstacles to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because it dilutes the reason of natural preservation and removes the fundamental reasons why the nature should be preserved.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balance the value clarification between economic and ecological viewpoint in actual life. Furthermore, environmental problems can not be solved only through economic approach, because of their limits to belief solving from providing incentives.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people have a way of thinking which economic activities and debates can be made on the ecological resources. Therefore we can compare this relation to CHAE-YONG founded on Buddhism and Chinese philosophy. CHAE means essence of every

reaction in the cosmos, and YONG means the reaction itself. CHAE is regarded to ecological resources, and YONG is thought to every-day economic activities. YONG is not able to exist without CHAE. If economic activities can be done on the basic limit of ecological resources, we can build suitable environment to living condition. We call this appropriate environment as SANG. In other words, the connection of CHAE-YONG-SANG means ecological resources - economic activities - sustainable environment.

It is realized that the relations between economics and ecology should be equalized for the balanced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This study tries to get out of unbalanced relations between economics and ecology from the perspectives of CHAE-YONG-SANG and it was done to suggest an alternative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program

Key word :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program, CHAE-YONG theory, balance between ecology and economy.

교육현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보이고자 한다.

I. 머릿말

1. 연구목적

환경윤리교육에서 가장 큰 논점은 ‘환경보전이나? 경제성장이나?’에 있다고 보는 데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다. 환경보전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환경문제는 없어지겠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없고, 경제성장에 힘쓰다 보면 환경은 또 다시 문제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와같이 상반된 논의의 구도는 환경윤리 교육분야에서 대단한 관심사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대부분 원론적 수준에서 논의가 끝나고 있다.¹⁾

환경윤리교육이 환경보전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제 원론 수준의 논의를 지양하고 이를 조화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갈등구조를 통합하여 조화로운 관계로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윤리교육의 가능성을 동양의 오랜 사유체계를 이루어 왔던 體用論에서 찾아보고 이를 실제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그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體用論이다.

體用論의 유래는 불교의 화엄철학과 중국철학,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신라시대의 원효가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疏·別記)에서 강조한 體-用-相을 자연(생태)-경제-환경과 연계시켜서 환경윤리교육에 대한 접근방법을 시도하고자 하였다(표 1).

모든 인간의 경제활동은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채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표 1〉 體用論과 연계되는 논문의 개념 비교

체용론(體用論)	본 논문에서의 연계성 비유
체(體)	자연(생태)
용(用)	경제
상(相)	환경

1) 예를 들면 인간의 자연관이 근본적으로 개발에서 보전위주로 바뀌어져야한다는 논의, 과학기술 중심적 사고에서 생태 중심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 혹은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 홍보를 해야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논의들.

用이라고 본다면 體는 자연(생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조화롭게 나타난 卍이 올바른 삶의 환경으로 표출 될 것이라는 점이 이 논문에서 이룬 연구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인간의 경제적 삶과 생태계의 관계를 상정함에 있어서 현실의 우리나라 환경교육과정은 이런 인식체계에 미흡한 면이 많다. 즉 환경보전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 내용과, 인간의 경제활동이 과도하여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는 내용은 많이 다루어 지고, 이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많지만 구체적으로 '생태와 경제적 삶이 어떤 연계성'위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體-用-相의 연계성을 환경윤리교육 방안으로 연결하여, <환경 의식>과 <환경 가치>를 體로 느낄 수 있는 환경교육적 방안을 대안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환경윤리교육을 위한 교과구성에 대안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²⁾

II. 환경윤리교육의 體用論的 접근

1. 體用論의 유래와 의미

體用이라는 말은 원래 '신체의 각 부분'이라는 말과 '식용으로 쓸 수 있다. 혹은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 말이었다. 하지만 體用이 대(對)나 혹은 쌍(雙)으로 사용되는 것은 순자(旬

子)에서 처음 사용되며³⁾ 불교 전래 이전의 중국에서 體의 개념은 형체(形體) 혹은 형질(形質)을 의미하고 있다(장원목, 1998).

일반적으로 體와 用의 범주를 말할 때 體는 本體 혹은 實體로, 用은 (木體의) 作用 혹은 現象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體用의 범주(範疇)가 지닌 다양성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한다. 몽배원(蒙培元)은 體와 用을 각각 실체와 기능, 본질과 현상으로 번역하고 있으나(平井俊榮, 1979), 實體나 本質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장립문(張立文)은 중국철학의 범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體用범주를 이른바 虛虛범주에 귀속시킨 후 대체로 본질과 현상, 본체와 작용, 실체와 속성 등의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정리한다. 탕일개(湯一介)는 體用 범주는 본체와 현상의 의미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근거와 효용⁴⁾, 전체와 부분, 추상과 구체 등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湯一介, 1988). 진영첩(陳榮捷)과 그라함(Graham)은 體와 用을 실체(Substance)와 기능(Function)으로 번역한다(장원목, 1999).

그러나 池田秀三에 의하면, 體用은 이데아와 個物, 신과 피조물, 혹은 본질과 징표, 주체와 객체, 그 어떤 서양용어로 번역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면적임을 면할 길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볼 때, 體用은 서양 철학적 개념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철두철미 중국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장원목, 1999). 이러한 體用 개념의 유래에 대해서는 중국철학 유래설과 불교철학 유래설의 두 가

2) 이러한 환경가치교육의 방법에 대한 본 제안에서 느껴지는 한계점은 첫째, 體用論과 관련된 환경윤리교육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대안적 성격의 논의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과 둘째, 환경교육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환경의식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교과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인 바, 이에 대한 객관적 계량화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기까지는 <대안적 대안의 성격>을 크게 벗어난다고 보아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한다. 셋째, 환경가치교육을 위한 타 과목과의 공조체계가 없이 이 교육과정만으로 연구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3) 荀子の 경우 體用은 형체와 작용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음.

4) 민중서림, 국어사전, 1988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우리말 사전에는 <어떤 일의 보람, 효험>의 뜻으로 풀이 되어있다.>

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2. 불교에서의 體用論

전통적으로 體用論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화엄철학의 이법계(理法界)와 사법계(事法界)를 체계화한 것으로 본다. 事란 사상(事相), 사법(事法)으로써 차별적인 현상을 말하고 理란 진리, 이성, 즉 보편적인 진리로서의 평등한 본체를 말한다. 일반적인 사람이 미혹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차별적인 현상계의 사상(事相)을 事라고 함축하며 성자가 지혜의 눈으로 투시하는 보편적인 구경의 진리를 理라는 용어로 함축한다.

한편, 화엄경의 사상을 바탕으로 體와 用의 사고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신라시대의 원효는 그의 저서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疏)에서 불성(眞如)은 연(緣)에 따라 일체의 존재(事)로 현상된다고 말하고 현상과 진여의 시·공간적 동일성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법계는 體를 말합이고 事法界는 用을 말한다. 또한 體와 用이 한몸구조로 나타난 실제의 모습을 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마명(馬鳴)의 대승기신론에서 구체적으로 體와 用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어울려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相을 세가지로 구별하여 본체와 현상의 이원화 구조를 통일적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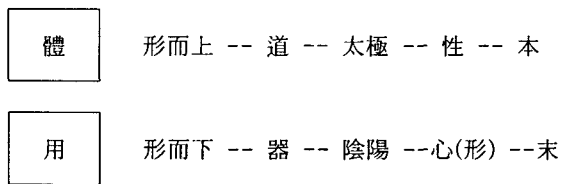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논리화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疏)에서이다. 원효는 그의 화쟁(和諍)사상에서 體와 用을 바탕으로 한 一心의 會通상태를 갈구하고 있다.⁵⁾ 동양 사상에서는 줄곧 이항대립을 극복하는

일원론적 사고의 바탕이 되어 왔다.⁶⁾ 즉 이 세계의 모든 정신적 혹은 유형, 무형의 존재들은 本末, 體用의 관점에 의거하여 <그림 1>과 같은 틀 속에서 나름대로 범주화, 서열화하여 인식해 온 일원론적 인식방법이었다(鄭一均, 1996).

3. 중국철학에서의 體用論

體用論의 중국 유래설과 불교 유래설은 각기 나름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體用論의 범주, 방법, 논리 등은 불교가 중국화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완성된 '사유의 틀'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性理學에 있어서 體用論이 본격적으로 철학적 사유의 틀을 제공한 것은 당송에 이르러서 本體論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이다.

<그림 1>에서 理는 곧 원리(principles)를 말하고 氣란 이 원리에 입각한 삶의 양태(樣態)를 말한다. 또 태극이 무극(無極)상태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다면 음과 양은 분화상태로 작용을 말한다. 성(性)이 그 사람이 가진 본성(本性)으로 무변(無變)을 말한다면 心은 마음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일시적이며 가변적이다. 마찬가지로 道가 궁극적인 진리의 지향점을 말한다면 器



<그림 1> 개념적으로 본 體用的 思惟의 연결 구조

5) 원효, <涅槃經宗要>--佛敎全書 1책 543쪽; 第六會通 於中有二 初通文異 後會義同.../ 大乘起信論疏 <解釋分>; --何爲一心, 謂染淨諸法 其性無二, 眞妄二門不得有異, 故名爲一, 此無異處, 諸法中實.

6) 불교의 體用論이 중국의 性理學에서도 기본적인 세계관으로 작용한 것은 漢代에서 부터이다. 유정기에 의하면 (동양사상사전, 우문당출판사, 1965, 23-24) 불교가 아닌 동양의 유교권에서 體·用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孔穎達의 周易正義에서 <乾은 元亨利貞이란 경문을 해석할에서 乾은 天을 象한 것인데 어찌서 天이라 하지 않고 乾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天은 定體의 名이요, 乾은 作用을 稱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說卦傳에는 乾은 健이라고 하였으니 天의 體는 健으로서 用을 삼은 것이다. 聖人이 易을 作함은 本是가 人間을 敎化하기 위함이니 人間은 天의 用을 法하기는 하지만 天의 體는 法할 수 없기 때문에 乾이라고 명한 것이고 天이라고 칭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한 대목에서이다.

는 삶의 방안을 의미한다(장성재, 1994).

성리학에 있어서 體用論은 끊임없이 논의의 쟁점을 형성해 온 골간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구한말과 현대 중국에 이르기까지 실제 철학적 논의의 토대를 형성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장횡거(張橫渠)는 무체유용(無體有用) 혹은 허체기용(虛體氣用), 程朱性理學에서는 유체유용(有體有用) 이체기용(理體氣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체용의 범주가 활용되었고, 우리나라 구한말 성리학자들은 구체신용(舊體新用)으로서 근대화의 수용논리를 편 바 있으며, 중국에서도 중체서용(中體西用) 혹은 서체중용(西體中用)의 논리가 현대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平井俊榮, 1979).

이와 같은 사유 체계를 중국의 불교적으로 보면 불교가 중국화되는 과정에서 중국 고유의 사유들과 융합될 수 있는 사유들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體用論은 중국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體用論은 불교적 사유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중국화를 모색하려는 과정에서 생겨난 사유의 틀이기에 불교적인 것을 그 속에 담고 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體用論은 불교적이면서도 중국적인 것이다(장원목, 1999).

4. 體-用-相의 연계성

이와 같이 체와 용의 개념은 이와같이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어느 경우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체와 용의 연계성이다. 위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體-用-相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體는 보이는 것이거나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사물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사물의 궁극한 실체를 나타낸 것이다(William, 1994). 사람들은 반달이 떴을 때 그 빛나는 부분만 보고 반달이라고 이른다. 그러나 달의 밝은 부분이 나타났다고 해고 어두운 부분이 부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세계는 감춰진 것이나 드러난 것이나 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그것이 體이다. 동시에 體는 자체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정적인 것이지만 현상을 현상답게 만드는 의지가 되는 실체이므로 體와 用이 옮겨 엮어진다 면 본체 내에 이미 用의 세계가 들어 와 있는 상태로 굳이 구별할 수가 없지만, 만일 用의 세계만으로 국한된다면 體를 볼 수가 없다(정일균, 1996).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생태적 가치추구'와 '경제적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생태적 가치추구'는 體에 해당하고 '경제적 현실'을 위한 효율 지향적 삶은 用에 해당하여 이것이 옳은 관계를 형성한다면 경제적 현실의 문제는 생태라는 바탕 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환경문제는 體에 用이 이미 존재해 있기 보다는, 경제라는 用에 국한되어 體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상화된 삶의 의식 속에서 본질과 현상,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用의 세계가 마치 본체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用은 한 사물과 다른 사물과의 관계, 다른 사물에 대하여 작용하고 있는 기능을 나타낸 것이며, 사물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운동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달이 월별로 크기를 달리해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조석과 간만의 차를 나타내는 것도 달이라는 실체에 대한 用이다.

같은 사물의 體가 비로소 밖으로 표현되어 드러난 것이다. 體가 비경험적 세계라면 相은 인간의 경험에 의하여 사물을 드러나는 그대로 보는 경지이다. 마치 불이 켜져 있으면 그 불꽃 자체는 體에 해당하고 그 불로 인해 발생하는 빛은 用에 해당하며, 體와 用의 작용이 어울어져 현실화 된 것 즉, '그 불꽃 둘레에 빛이 생겨 주위를 밝히고 있는 촛불의 모습'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相이다.

그래서 體와 用과 相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연계한다. 體는 用의 본체가 되는 것, 그리고 用은 體를 바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의 개념은 마치 촛불이 켜져 있을 때 실제 밝음이라는 촛불의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불꽃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 불꽃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초의 몸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과 상통하여 體와 用은 연계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체와 용의 연계적 개념을 환경문제에

비추어 보면 '생태적 가치추구'를 體로 하고 '경제적 현실'을 用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體라는 생태적 작용이 用이라는 경제적 삶의 행위를 통하여 구현되는 사회적 相을 보일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다.

Ⅲ. 환경에 대한 體-用-相의 연계적 수용

1. 연계적 수용을 위한 體用論的 개념의 재정립

이와같은 체용론을 근거로, 자연의 생태를 體로 하고 인간의 경제를 用으로 연계짓는 환경윤리교육을 수용하기 위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 개념상의 논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자연, 생태, 또는 환경이라는 세 가지 용어의 개념을 흔히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體用論으로 볼 때 지적되어야 마땅하다. 흔히 생태라 하면 곧 환경을 의미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연이라는 말까지 의미하는 것처럼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체용론에 근거한다면 우선 우리가 말하는 '환경'이라는 용어는 '자연이나 생태'라는 용어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환경이라는 용어는 體라는 바탕 위에서 用의 작용이 이루어진 모습, 바로 相에 해당된다. 즉 환경이란 말의 개념을 멀리 자연이라는 개념까지 확장시킬 것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 대한 '삶의 환경'이라고 말할 때의 개념에 국한해서 환경을 의미하는 용어로 보아야 한다.⁷⁾ 아울러서 體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이고, 그 자연 중에서 인간의 눈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진

자연의 모습에 국한해서 바로 생태라는 개념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자연과 생태의 구별은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여진 인간의 판단 여부가 그 개념적 분기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눈으로 판단된 자연의 모습을 '생태'라는 용어로 규정짓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우선 생태적 사실이 자연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경제적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엄밀히 자연이 아니라 생태이기 때문이다. 흔한 예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발이라는 경제적 활동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이때 평가의 잣대가 되는 것은 바로 생태학적 범주에 국한된 것이지 자연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라는 개념은 자연을 또한 바탕으로 해야지 생태 자체만 독립적으로 생각해서는 경제적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자연이란 오히려 '본성'에 가까운 말이며, 따라서 이해의 대상일 뿐 근본적으로 생태처럼 탐구의 대상이 아니다.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태라는 창을 통하여 자연을 설명하려 하지만 오히려 자연은 사람에게 이해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이란 현상학적이거나 해석학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생태란 구조적이면서 논리실증주의적 관점이 많다. 동시에 이러한 맥락은 동양사회에서 오랜 사고의 맥락을 형성했던 불교의 제행무상(諸行無常)이나 노장사상의 핵심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며, 최근의 카오스 이론에서도 자연은 대단히 카오스적 측면이 강한 대신 생태는 코스모스(cosmos)적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자연과 생태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은 환경교육이 인지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보다 정의적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즈음의 환경교육 추세와도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그것이 생태

7) 환경에 대한 이러한 개념규정은 현실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과 같은 것임을 밝힌다.

8)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체용론적으로 보면 論語의 <述而不作>과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김태경의 논문(환경교육, 12(1), 322-334를 참고할 것.

교육의 내용을 담기도 하고 자연교육의 내용을 담기도 하며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환경 자체에 대한 교육이기도 해 왔다. 體用論에 근거한 필자의 주장에서 보면 자연교육은 體로서의 자연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이지만 자연관찰교육은 생태교육을 의미하며, 생태교육은 경제라는 부분과 대비시킬 수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환경적으로 현실문제가 되어 나타나는 인간의 경제활동은 생태에 기반을 둔 것이지 자연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활동의 규모나, 경제적으로 유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생태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현실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에 익숙해진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부분에서 생태는 자연의 원리를 바탕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생태교육이 자연관찰교육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다. 오감을 통해서 자연을 그대로 느끼는 것보다는 일상의 교과서적인 이론에서 직접 관찰을 체험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곧 체험교육의 현주소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구분에 의하면 자연관찰교육은 과학교육이지 환경교육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물학적 필요가 충족되는 가치의 중심지라는 의미에서 「장소」라는 공간 자체의 의미보다는 삶의 장소가 가지는 상징적, 정신적 의미로서의 「장소감」을 구별하여 해석학적 인문지리에 접근하고 있는 투안(Yi-Fu Tuan)의 논리는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Yi-Fu Tuan, 1977).⁹⁾ 즉 환경교육이 우리의 직접적인 삶의 환경(相)을 위한 교육이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하기 쉬운 현실적 삶으로써의 환경이 독립

적으로 어찌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경제활동(用)이 자연이라는 체(體)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환경이라는 相이 비로소 개선될 수 있다는 논리로서 접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계선 상에서 환경교육의 실체를 보다 정확히 규명해야 되는 것이다.¹⁰⁾

2. 수용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환경윤리 교육에 대해서 대안적 접근 방법을 모색한다면 <표 2>의 과정처럼 모색해 볼 수 있다. 體-用-相과 자연-경제-환경으로 수용한다면 그것의 핵심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경제적 풍요란 곧 用의 세계이지 그것이 본체가 아님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환경윤리교육 관련 담론들은 그 근본적인 해결이 『의식과 생활의 전환』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데 전환의 방향은 대부분 잘못된 用 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환경오염을 경제정책에서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유인효과가 잘못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경제라는 用의 세계에 유인효과만 제대로 주면 환경문제는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를 體-用-相의 연계선상에서 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體用論으로 보면 用이 잘못되었다고 用을 독립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體를 바탕으로 用이 있고 이것이 조화되어 相이라는 환경이 나타남을 일깨우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방향의 환경교육이 되기 위한 방법의 핵심은 현실사회에서 잘못된 體, 用, 相을 동시에 연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에서 이론적으로 설명된 體用論에 근거하여 무엇이 잘못되어 우리에게 현재 나타난 相이 환경문제로 나타나고 있

9) 예를들면 <집(home)과 주택(house)>의 차이, 또는 <길과 도로>의 차이에서 주택과 도로가 주는 의미는 기능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장소>에 비유된다면 집과 길이 주는 의미는 대단히 감각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장소감>에 비유된다고 하겠다.

10) 필자의 주장은 앞에서 말했던 자연교육이 환경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11) 이와같은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미 <21세기 환경교육의 혁신방안>에 수록된 본인의 출고 -문화반성적 환경교육-에서 <록인(lock in) 현상>, <문화의 물상화>, <문화적 여과>의 예로써 설명된 바 있음.

〈표 2〉 體用論을 활용한 환경윤리교육적 접근의 기본틀

體用論的 인식과정		실제 대안적 설명으로 제시된 試案的 例示
1 단계	體-用-相의 인식방법 소개	體 : 생태학적 인식방법 → 用 : 경제학적 인식방법 → 相 : 올바른 삶의 환경으로 구현된 實相
2 단계	잘못된 體의 확인 (인식의 大前提)	① <싫은 것>과 <싫어하는 것>의 차이 인식 ② <좋은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 인식
3 단계	잘못된 用의 파악과정 (기존의 인식 틀 깨기)	① 과학기술의 문제점 설명 ② 엔트로피 進化構造의 인식
4 단계	잘못된 相의 파악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문제 찾기)	① 시장경제하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적 가치 편향 ② 생태와 경제의 갈등구조로서의 환경인식 ③ 생태와 경제의 상호의존적 환경인식
5 단계	인식의 대전제에 대한 재 확인 (知行合一의 인식과정)	體의 인식에 대한 확인과정 (환류과정을 통하여 다시 확인 함으로써 體-用-相의 인식과정이 반복되도록 함.)

는 것인지 이를 정리한 것이 앞서 제시한다.¹¹⁾ 그것을 깨달아 가는 순서로써 정리한 것이 <표 2>인데 이것은 體-用-相의 연계선상에서의 인식체계라고 할 수 있다.

가. 잘못된 體에 대한 이해 : 문화와 환경의 공진화 파괴

환경에 대한 가치인식을 體-用-相의 연계과정으로 수용하기 위한 대전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體'에 대한 인식으로써 인간의 문명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즉,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형성해 온 문명은 <좋은 것>이고 비문명적인 요소는 <싫은 것>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의 수경부터 출발해야 환경문제를 그 본질적인 부분(體)부터 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김태경, 1999; 2000). 이 말의 의미는 현재의 환경문제의 가장 큰 딜렘마는 인간중심적 사고라는 점을 일깨울 수 있는 인식의 전제가 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표 2>에서 보듯이 인

식의 대전제 위에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현실생활에서 '잘못된 用'에 대한 파악과 생태학적, 경제학적 인식과 그 결과로 나타난 실제 환경(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게 된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 온 그들의 문화에 지배 받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문화는 연속적인 자연을 분별하여 길들여진 불연속적인 것이다. 우리의 언어는 자연의 소리에 의해 길들여진 것이고, 결혼은 짝짓기를 길들인 것이며, 문화적 시간은 자연의 흐름을 분별하여 길들인 것이다(조용환, 1999). 그러나 길들여진 현재의 문화에서 그것이 원래 무엇에서부터 길들여진 것인가? 를 찾지 못하게 됨으로써 현재 삶의 문화는 體 부분을 상실한다.¹²⁾ 그렇게 됨으로써 인간이 만들어 낸 문화는 원래 그 바탕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목적과 수단의 전도, 즉 用이 用을 계속적으로 낳아 가는 體用的 전도 혹은 주와 객이 전도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와같은 관점은 환경결정론과 자유의지적 견

12) 문화를 Geno-type(발생형)과 Pheno-type(표현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의 삶은 Geno-type 을 상실한 채 Pheno-type 문화로 점철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해에서 잘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문화와 환경의 공진화(共進化) 구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환경 결정론은 우리의 삶이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함과 동시에, 삶이라는 우리의 폐쇄회로 구조가 다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환경결정론은 모든 환경논의에서 항상 근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모든 견해가 사실 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삶을 엮어메는 문화의 패러다임은 과학에 대한 과신과 생태적으로는 가능주의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다. 불교 유래의 體用論으로 보면 결국 인간의 문화는 인간이 형성시킨 현상적인 것으로 화엄철학에서 말하는 사법계(事法界)이고, 여기서 환경은 인간의 문화적 행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본체로써 현상과 현실의 기초를 이루는 이법계(理法界)를 의미한다. 환경결정론이란 본시 무자성(無自性)한 환경이 인간의 문화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를 주도하는 인간은 환경이라는 것이 그 문화에 내재해야만 되는 당위의 개념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까르마츠앙, 1990).

환경결정론이라는 Geno-type 문화의 상실은 『도구적 자연관』으로 배태되어 왔다.(임흥빈, 1995) 따라서 산업혁명 이후로 자연지배 환경론은 자연스럽게 『자유지론』에 절대 편향을 주워 온 것 뿐이며 환경결정론이라는 본체가 무시되고, 환경과 인간의 공진화를 파괴하였다. 이것이 더욱 문제화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이라는 것 자체를 '물상화된 자연'¹³⁾ 인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편리와 효율을 좇아 형성해 온 그들 스스로의 문화에 대해서 『이게 아닌데 ...』라고 회의하고 한편으로는 싫어하면서도 그에 빠져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원래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각 자체를 차츰차츰 여과당하고 스스로 형성

해온 문화에 익숙해져 살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과장치란 바로 인간의 삶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온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사회를 형성해 온 삶의 과정 자체가 곧 여과장치가 되어 왔던 것이고 그것이 스스로 우리를 포장시켜온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여과장정을 거치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이 아닌 인식된 환경으로서 자연을 볼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Naess, 1992).

나. 잘못된 用의 이해 : 과학과 기술의 이중성

무엇이든 과학화되어 있으면 그것이 편리하고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기술문화의 문제이고 기술문화는 곧 用의 문화이다. 그러므로 과학과는 별도로 기술은 현실적으로 과학에 유착하여 그 실체를 눈 앞에 나타내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는 用의 세계라고 범주화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자연과 생태의 차이처럼 과학과 기술의 관계에 있다. 곧 과학은 기술로 실체화되어야만 가치있는 것인가? 라는 점이다(Agassi, 1985). 여기서 과학과 기술의 관계를 體用論과 연결하여 생태와 경제의 관계로 생각하면 과학과 기술의 근본적인 관계가 나타난다. 과학과 기술의 문제도 體와 用의 한 몸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은 用의 문제일 뿐 과학은 인간이 가져야할 모든 지식체계와 가치체계의 종합이지 꼭 그것이 기술로 이어져야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기에 본체이며, 동시에 비경험적, 비존재적 세계로 남을 필요가 있다. 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 기술은 비존재의 색(色)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며 과학은 어떤 모습을 갖지 않는 空으로 理化化(體)될

13) 『물상화』 즉, 이념적 현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거나, 또는 그 이념적 현상의 실재가 그릇되게 해석하고자서는 마치 제대로 이해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 이런 현상들이 우리를 삶의 토대에 깊게 깔려 있다는 것. Georg Lukacs 에 의해서 처음 쓰여진 reification 의 개념이 바로 이고 동시에 환경의 인식에서도 D. Pepper 가 주장하는 문화적 여과의 개념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⁴⁾ 따라서 體로서의 공(空)은 색(色)을 통하여 드러나야지 비로소 이법계와 사법계가 총융화한 사리무애법계(事理無碍法界)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

과학과 기술이 體와 用의 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이때부터 과학과 연결된 기술자는 더 이상 스스로의 모습이 아니다. 이를테면 옛날 장인들은 그들의 기술을 습득하고 이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심오한 인생의 이치를 터득하고 더 나아가 예술적 차원으로까지도 승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과학과 기술이 접맥된 상황에서는 이미 기술자는 과학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자기의 인생을 승화시키는 계기는 거의 만들 수 없고 그의 기술은 예술이 아니라 철저히 삶을 위한 노동이 되어 버린다(임홍빈, 1995). 그 노동 속에서 피어난 것이 현대의 문명이고 자본주의 도시문화의 현실이다. 공자는 이 부분을 술이부작(述而不作)으로 표현한다(김학주, 1985). 이는 옛것을 이어 받아 사물의 이치가 이렇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저 깨달은 자체로 만족해야지, 거기에 스스로의 창작을 가미하기 시작하면 갖은 사특함이 다 발현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쓰임(用)의 경우로 비유된다.

오늘날 과학은 바로 사물의 이치를 스스로 터득하는 데 그치지 못하고 인간의 편리한 방향을 좇아 많은 창작을 해내게 되기 때문에 이는 이미 자연의 원리를 스스로 교감하고 이를 만족하는 線을 그만 지나친 것이다. 즉 作의 세계는 인간이 편리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계속 또 다른 作을 지어내지만 이는 바로 孔丘의 말대로 약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作의 세계가 기술의 세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述而不作의 의미를 體用論과 결부

시킨다면 述하되 不作의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올바른 用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¹⁵⁾

다. 잘못된 相의 출현 : 경제적 사고와 생태적 사고의 갈등

생태학은 비록 일부분이지만 자연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경제학은 인간적 삶의 양태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란 본질적으로 경제학과 생태학의 사고구조적 갈등이라는 相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은 생태적 자원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경제활동과 생태적 자원의 관계를 경제적 유인효과로서 사회적으로 보장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인간의 경제적 행태는 지속적인 환경에 대한 무임승차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생태와 경제가 본래 일원적으로 연결된 '한몸구조'라는¹⁶⁾ 인식을 하게 되면 이 본질적인 갈등구조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고 이것은 곧 경제활동이 생태라는 자신의 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고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경제는 생태적 환경을 근거로 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는 생태-경제적 관계를 體用의 사유체계로 구성하자는 것은 곧 生態的 思考를 體로 보고 經濟的 思考를 用으로 보아, 이 둘을 동시에 보도록 하는 '한몸구조'를 만들자는 것과 同値가 된다. 한몸구조라고 했을 때는 불꽃과 빛의 관계가 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실처럼 경제적 활동이 생태적 환경자원을 일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4) <그림 1>의 관계를 참고할 것.

15) 이에 대해 현상학자들은, <다시 사물들 자체에로>라는 표어를 내걸면서 '존재'안에 주체와 객체를 종합시키고 의식에 의해 정립된, 혹은 지향된 사물들로 세계를 볼 것을 주장한다. 나의 의식이 능동적으로 세계를 구성하고 지향하는 것이기에, 세계란 주어진 것도 만드는 것도 아닌, 세계가 세계 그 자체를 세계화하는 (the worlding-world) 존재와 진실 사이의 필연적 연관이며, 존재가 새로이 세계를 해석하고 이를 역사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열려진 대상이다.

16) 여기서 <한몸구조>라는 용어는 연구자가 정의한 것으로 생태와 경제가 결코 나누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적 측면에서도 이 양자의 논리가 어떤 점이 어떻게 닮고, 또 같음을 일으키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파악은 첫째,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시장 경제적 삶의 양태가 완전할 수 없다는 점과 둘째, 현실적인 삶과 환경문제와의 연결고리를 학생들에게 철저히 공유토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이다. 이와 같은 교육적 인식을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과 자연의 생각이 잘 對比되어 드러나도록, 양자의 개념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생태학적 사례가 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원리적 예시가 될 수 있다.

이 예시는 자연계의 천이에 따른 생체량과 생산량의 비율에서 구체화된다.¹⁷⁾ 자연계에서는 천이(遷移)가 발달함에 따라 스스로 B/P비율(Biomass(생체량)과 Production(생산량))의 비율을 극대화시켜 가능한 한 최대의 생체량을 유지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가는 반면, 인간의 목적은 반대로 P/B비율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자연계로부터 더 많은 산출량을 얻어내려 하기 때문에 이 두 목적간에는 서로 충돌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자는 중국의 사상가 맹자(孟軻)의 예를 들었다(孟子, 梁惠王篇).

數畝를 不入洿池하면, 魚鼈 不可勝食이요, 斧鉞을 以時林入하면 林木을 不可承用이라.

<뽕뽕하게 가는 그물을 물에 넣지 않으면(사용하지 않으면) 고기를 다 먹지 못하고, 산에 도끼질할 때에 맞추어 하면, 나무를 쓰기도 남음이 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고기를 잡아먹되 큰 고기만 잡아먹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 쓰되 큰 나무만 베어

쓰면 된다는 것이다. 즉 이를 體用論적으로 보면 다음 <표 3>과 같은 연결 도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큰 고기, 큰 나무가 없으면 그물을 치지도, 산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된다는 인간의 지극한 절제가 本體가 되는 것이며 이는 곧 바로 생태학적·적소(Niche)와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생활이 왜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아울러 이런 예는 학생들은 인간의 목적과 자연의 목적은 서로 배치가 되며,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기술중심주의(그물 코를 줄여서라도 고기를 많이 잡으려는 노력이나 산의 나무를 아무 때나 베어내려는 노력)와 생태중심주의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상충되는 목적간에는 서로 타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칸막이 모형의 기본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자연계는 젊음과 성숙의 균형유지를 위한 그 특유의 타율적 안정성(他律的安定性)을 가지기 때문에 일정한 변화와, 어느 정도의 자극을 필요로 하지만, 인간에 의해 야기되는 대부분의 물리적 압박은 너무나 돌발적이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그 결과 안정보다는 심한 진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같이 경제학의 논리와 생태학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구조방식은 비슷하나 그 시각에서 대단한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또한 사고하는 그릇 크기의 차이이기도 하다.

경제사상사적 측면에서도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환경자원(환경재, 공공재)에 관한 경제현상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성장

<표 3> 孟자의 관점에 따른 體.用.相의 연결구조

體	<좋은 것> ==> 큰 물고기 / 큰 나무 (코가) 큰 그물, (때에 맞는) 벌목	생태적 삶
用	<좋아하는 것> 코가 작은 그물/ 때에 무관한 벌목=효율증대	경제적 樣態
相	<알맞은 환경> 치어가 보전되는 바다 / 나무로 뽕뽕한 산	생태-경제적 調和

17) 생태학자 Eugene Podum은 b/p와 p/b의 비율을 전제로한 칸막이 모형을 많은 저서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태와 경제의 등가교환의 원리로써 Emergy이론에 이르고 있다.

하고 있는 경제는 단지 정상적인 장기균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결국 경제는 자연환경의 한계로 인하여 최저 생계비 수준의 장기적 정상적 균형(stationary state)에 도달하게 된다는 소위, 정상상태론을 제시했는데 이를 역으로 해석해 보면 경제성장이 정상상태에 이르지 않고, 계속될 경우에는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은 그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인구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하고 역으로 증가된 인구는 계속해서 열악한 상태의 자연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확체감이 작용하여 결국 최저생계비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인구의 증가와 수확체감의 법칙의 작용으로, 불경계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제로 경제 성장상태로 자동적으로 돌입한다고 생각하고, 리카도(Ricard)나 밀(Mill) 등은 정상상태를 경제성장과정의 불가피한 종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본연의 성격이 축적에 있으므로 자본주의가 비경제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보면 이 정상상태는 자본주의 운행법칙과 절대로 일치할 수 없게 된다는 허구성을 발견하게 된다(Singh, 1982).

생태계에서는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 결과 스스로의 무질서 상태를 극복하고 정상상태로 진입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열역학 2법칙인 엔트로피의 발생을 스스로 극소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열역학 1법칙의 물량적 수지만 맞추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의 발생을 억제하는 구조가 없는 정상상태의 제로성장이란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은 이미 밝혀졌다.

IV. 體用論적 환경윤리교육

- 환경윤리교육에 있어서 체용론의 수용가능성 -

환경윤리교육 방법론을 體用論으로 수용하는

것은 오늘날 환경문제의 바탕이 과학에 앞서, 인간이 뿌린 문화의 씨앗이 발아한 것이라는 데서 인식의 출발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문화가 자연을 모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환경결정론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폐쇄구조임을 밝혔다. 자연이라는 體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려 하지만 인간의 문화는 '좋아하는 것'을 택하고 있고, 과학이라는 體는 환경결정적이고자 하나, 기술이라는 用은 이미 인간의 문화를 지배하고, 생태라는 體는 자연적 삶의 크기를 말하려 하지만 경제라는 用은 효율적 삶을 선호하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 문제는 體와 동떨어져 만들어진 用의 문화에 있다는 점을 體用論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 점이 환경윤리교육적 수용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논리는 현재 우리 일상 생활과 학교환경교육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우리의 생활문화이든 교육문화이든 그것의 본 바탕은 자연(환경)에 기반을 둔 것인데, 다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화적 양태는 體(자연)에서 발현된 것임을 못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用이 用을 낳는 문화구조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윤리교육에 있어서 體用論의 수용가능성은 '우리 일상 생활문화에서 잘못된 用의 문화를 찾아내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體와 연결된 것임을 깨우치도록 하는 방법이 얼마나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에 달린 문제이다.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用의 문화를 찾을 수 있는 인식의 틀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문화를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연 무엇이 잘못되어 올바른 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라는 부분에서 體가 用을 통하여 생태와 경제가 '한몸구조'가 된 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用이 用을 통하여 계속적인 수단과 목표의 전도(顛倒)를 낳고 있는 상태임을 알게 하는 인식론적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에 우리가 환경문제라는 잘못된 相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에게 익숙한대로 用의 문화에 집착하여 반성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體用論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用의 반성만으로는 절대 불가하고 體를 바탕으로 해서 用의 문화를 반성해야 올바른 相이 그려질 수 있고, 그것이 현실의 잘못된 相과 비교되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用의 문화에 대한 반성이 用의 차원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곧 수단과 목표의 전도가 환경윤리 교육에서 시사하는 바에서 찾을 수 있다. 근, 현대의 합리화 과정 속에서 배태된 비합리성은 수단과 목표의 전도라는 관점에서 해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 합리성을 극대화시키다 보면 애당초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그 자체 목표로 변하게 되며 이 수단은 차츰 독립적인 가치로 전화(轉化)하며 인간이 추구하던 본질의 목표를 상실하게 된다. 말하자면 體는 없어지고 用의 세계만이 남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윤리교육의 핵심은 바로 효율적인 경제를 추구하는, 用이 用을 끊임없이 배태시키는 고리를 끊는 것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환경윤리교육적 방안을 구성하기 위해서 用이 用을 배태시키는 본질적인 구조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인간이 세계를 바라볼 때 주(主)와 객(客), 본질과 현상을 구별하는 것은 소크라테스 이후 서구사상의 중심을 형성한 이항대립적 사고방식의 소산이다. 이규호에 의하면 희랍시대에는 모든 학문체계와 지식들이 철학의 테두리에 포괄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이후 칸트 이전까지 실재론과 관념론의 대립양상과 현대철학에 이어져 오는 자연과학적 방법론과 해석학의 구도, 또는 인식론과 철학적 인간학의 관점, 심리학적 탐색과 현상학적 직관 등의 철학적 사고는 사실상 대립적 양상을 띄었다고 본다(이규호, 1993). 이것은 데리다(Derrida)가 지적한 대로 하나가 다른 것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지배하려는 폭력적 계층질서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경제와 생태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이항적 대립구조에서 경제가 절대적인 우

위를 차지하여 지배구조를 형성한 것이 오늘날의 환경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시장경제의 핵심은 인간의 이기주의와 합리성을 바탕으로 공리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기주의는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한 시장의 작동에서는 대단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만 공공자원에 대한 경제윤리의 확립에는 오히려 끝없는 무임승차의 원인이 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합리성도 그것이 지니는 과학적 의미를 떠나 도구적 합리성을 실현하려는 것이 시장경제의 현실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개인의 효율과 이익의 극대화에 이용될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생태라는 환경자원이 항상 사적 경제활동의 이용 대상이 되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궁구(窮究)할 뿐이지 이것이 경제활동의 모태(體)가 되는 것임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인간의 경제활동이란 생태라는 환경자원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생태라는 體를 바탕으로 한 作用의 세계일 뿐이고, 따라서 생태와 경제는 體用論의 관계로 묶어질 수 있을 때 한 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을 이익과 효율의 극대화라는 이름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동양적 사고에서는 主와 客이 본시부터 서로 대립적이지 않았다. 대개의 동양사상이 이항대립을 부정하고 양자의 공존을 추구한 것이 사실이며, 천상과 지상, 세계와 인간 주체와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어서 동양사상의 이면을 깊게 통찰한다면 그것은 조화와 중용(中庸) 또는 공(空)이라는 이름 아래 직관(直觀)과 연역(演繹)에 치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엄에 바탕을 둔 <體-用-相>의 논리는 조화라는 이름의 직관이나 연역을 떠나 철저한 귀납으로 주(主), 객(客)의 이항적 대립구도를 넘어선 것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환경문제가 가지는 경제와 생태의 갈등논리를 조화적이면서 동시에 통합적으로 보게 하는 사고의 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경제적 가치편향이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현실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이와 같은 體와 用의 귀납적 귀

결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환경윤리교육을 위한 <생태적 가치추구>와 <경제적 현실>의 관계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V. 결론

이 논문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윤리교육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體와 用의 구조로 자연(생태)-경제-환경의 연계성을 현상학적 혹은 해석학적으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소결론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환경교육에서 인지적 영역의 교육보다 정의적 영역이 어렵고 그 중에서도 환경윤리교육은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태와 경제의 현실적인 갈등요인으로 그 방법론의 구체화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앞의 예시에서 제시된 것처럼 근본적인 體로써 환경을 인식하기 위한 틀은 문화와 생태의 공진화, 엔트로피, ‘좋은 것과 좋아 하는 것’의 차이, 실생활에서의 환경인식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으며, 여기서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體用論의 논리로 전개를 함으로써 本體(생태)가 없는 作用(경제)은 존재할 수 없고 그 결과로 나타난 相(환경)에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인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우리의 환경윤리교육은 경제적 사고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되, 경제적 사고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體用論적 맥락에서 보면 환경교육은 흔히 생각하기 쉬운대로 相으로써 나타난 환경에

대한 교육도 아니요, 환경문제의 원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用에 국한된 교육도 아니며, 그렇다고 體를 위한 교육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體用論을 수용한 환경교육은 독립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경제-환경이라는 연속선상에 위치지워진다고 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환경교육의 위상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사고가 필요하되 이는 어디까지나 事法界的 측면에서¹⁸⁾ 用을 실현함으로써 결국 生態라는 體에 通하는 事理無碍法界를¹⁹⁾ 이루어야 한다(이기영, 1992). 이는 바닷물이 곧 파도(用-事法界-現象)라는 현상을 일으키고, 우리는 파도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의 본체가 물인 것을 아는 것처럼 현상과 원리가 완전自在하고, 구체적 사물의 구체적 현상과 법이 融攝하는 세계이다. 환경윤리교육을 體用論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은 하나의 理를 통하여(體) 여러 事가 나타나며 事는 여러이지만(用) 그 본질(體)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생활 속에서 알게 하고자 함이다.

<참고 문헌>

- 김익수, 이기영, 진교훈 (1992). **한국인의 윤리 사상**. 울곡사상연구원, 34-67.
- 김태경(1999). 연찬방식을 활용한 대안적 환경교육 방안, **환경교육**, Vol.12(1), 322-334.
- 김태경(2000). 체용론에 의거한 환경윤리교육 연구.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 김학주(1986). **논어, 술이편(述而編)** 서울대 출판부.
- 까르마츠앙(이찬수 역) (1990). **화엄철학(華嚴哲學)**, 경서원, 325-329.
- 배종호(1982). 동양 인성론의 의의, **동양철학의**

18) 事法界란 理法界에 대한 상대어로서 일이 되어지는 원리에 부합되는 樣態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體用論으로는 體가 理法에 해당한다면 事法은 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9) 理法界와 事法界가 서로 장애가 없이 변화 속에서 融和하는 것을 말함.

20) 一即多 多即一, 總即別 別即總, 同即異 異即同, 成即壞 壞即成의 六相圓融 ; 이기영, 원효의 윤리사상, 한국인의 윤리사상 pp. 201-216.

- 본체론(本體論)과 인성론(人性論). 서울;연세대 출판부, 343-350.
- 서정운(1996). **공업열역학**. 서울:원화출판사, 345-347.
- 심재열(1992). 원효사상(元曉思想) -윤리관-. 서울:홍법원, 21-30.
- 원효(1995). **대승기신론 소·별기(大乘起信論疏·別記)** (은정희역), 서울:일지사.
- 유정기(1965). **동양사상사전**. 우문당출판사, 23-24.
- 윤용남(1996). 주자 이설(朱子 理說)의 체용론(體用論)적 분석. **동양철학** 7집.
- 이규호(1993). **현대철학 이해**. 민영사, 1-3.
- 임홍빈(1995). **기술문명과 철학**. 문예출판사, 45-57.
- 장성재(1994). 함허(涵虛)의 본체론(本體論) 연구, **동양철학**, 375-382.
- 장원목(1998). 성리학 본체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동양철학 박사학위논문 8-12.
- 전경수(1994). 엔트로피,부동가교환, 환경주의....., **과학사상**, 제3호, 서울;범양사.
- 정일균(1996). 다산 정약용의 세계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논문, 146-147
- 조용환(1999). 교육학에서의 문화연구. 김광익 외, **문화의 다학문적 접근**. 6장.
- 한국동양철학회 편, (1986). **동양철학의 본체론(本體論)과 인성론(人性論)**.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 홍사성 주편(1993). **불교상식백과**, 서울:불교 시대사, 567.
-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 교사 모임 (1995). **녹색교실**. 서울:내일을 여는 책.
- 陶行知(1996, 중국). **생활이 바로 교육이다**, 내일을 여는 책.
- 湯一介(1988). 中國傳統文化中的儒道釋. 中國和平出版社, 23.
- 佐島群已(1996). 感性と認識を育てる 環境教育. 東京:教育出版.
- 池田秀三(1990). 體と用. 中國宗教思想 2, 岩波書店, 17.
- 平井俊榮(1979). 中國佛教 と 體用思想. 理想, 東京:理想社, 549.
- Agassi, J. (1985). *Technology -Philosophical and Social aspect*. D. Reidel Publishing Co., Tokyo.
- Martinez-Alier, J. (1990). *Ecological Economics*, Blackwell; Oxford.
- Naess, A. (1992).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Cambridge.
- Pepper, D. (1983). *The Root of modern environmentalism*. Croom Helm.
- Singh, N. (1987). Economics and the Crisis of Ecology(박덕제 역) 102-3.
- William E. S. (1994). *A Dictionary of Chinese Buddhist Terms*. 經書院, 488.
- Yi-Fu Tuan (1977). *Space and Place* (구동회 역, 1995). 도서출판 대운.